출입문에서부터 자력수행 강조하는 대웅전

덕숭산 수덕사

수덕사는 덕숭산 아래에 있는 사찰입니다. 아름다운 계곡과 기암괴석이 조화를 이뤄 호서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덕숭산은 예산읍에서 서쪽 20㎞ 방향의 덕산면 사천리에 솟아 있습니다. 해발 580m의 덕숭산은 주변에 있는 가야산(해발 677.6m)보다 낮지만 백제 위덕왕 때 지어진 수덕사가 있는 탓인지 명산으로 꼽히는 산입니다.

도립공원인 덕숭산은 기암괴석이 많아 바위가 언뜻 보면 사람의 두개골이나 입을 벌리고 있는 맹수의 형상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소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벚나무 등이 많아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원효봉, 석문봉, 해태바위가 절경으로 꼽히며 수덕사 이외에도 정혜사, 보덕사, 만공탑 등 문화재도 많고 덕산온천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등산 코스가 길지 않아 가족 단위 등산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덕숭은 덕을 숭상한다는 뜻이며 수덕사는 덕을 닦는 사찰이라는 의미입니다. 수덕사에서 닦는 덕은 대웅전 마당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경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전경은 흡사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내려다보이는 전경과 마찬가지로 무한히 뻗은 산줄기를 한눈에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경을 신라 시대 부석사에서는 화엄 또는 극락이라고 표현했고, 법화사상적 배경을 가진 수덕사에서는 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제 위덕왕 때 지명 법사 창건

수덕사는 백제 위덕왕(554~597)때 지명 법사에 의해 창건됐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지명 법사가 신라 승려이기 때문에 지명 법사 창건설에 관한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삼국유사〉와 〈속고승전〉에서 601년 백제 무왕 때 혜현 스님이 〈법화경〉을 지송하고 삼론을 강연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 수덕사가 백제말에 사격을 갖춘 가람이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삼국유사〉에는 혜현 스님에 대해 "백제 사람으로 어려서 출가하여 〈법화경〉을 외는 것으로 업을 삼았으며, 부처께 기도하고 복을 청해 영험한 감응이 실로 많았으며 삼론을 배워 수도를 시작하니 신명에 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볼 때 수덕사는 창건 당시부터 법화신앙에 따라 석가모니불을 주불전으로 갖춘 사찰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덕사의 명칭과 창건에 관해서는 재미있는 수덕각시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통일 신라 때 가람이 퇴락해 중창불사를 해야 하는데, 젊은 여인이 불사를 돕기 위해 공양주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미모가 빼어나 수덕각시라는 별칭이 생겼고, 수덕각시의 미모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신라 재상의 아들인 정혜가 청혼을 해오자 수덕각시는 불사가 성사되면 혼인하겠다고 약조합니다. 그래서 정혜는 10년 걸릴 불사를 가산을 보태 3년 만에 끝내고 낙성식을 하게 됐습니다. 낙성식 후 정혜는 수덕각시에게 같이 떠날 것을 청했고, 수덕각시는 옷을 갈아입겠다고 방에 들어가더니 기척이 없었습니다. 정혜가 문을 열어보니 수덕각시는 다른 방으로 사라지려하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급히 수덕각시를 잡으려 하자 옆에 있던 바위가 갈라지더니 수덕각시는 버선 한 짝만 남기고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 바위가 갈라진 틈에서 봄이면 버선모양의 버선 꽃이 피는데 관세음보살의 화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이 절의 이름을 수덕사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수덕사에서는 전설을 믿고 관세음보살 가피를 받기 위해 기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최근에는 관음상을 봉안하게 됐습니다. 대웅전 서쪽 백련당 뒤편에 있는 바위가 바로 관세음보살이 현신했다고 전해지는 바위입니다.

완성도 높은 백제의 건축 양식

수덕사의 백미는 국보 제49호인 대웅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주위 산세와의 조화나 단정한 품새는 백제가 가진 불교 신앙세계를 완성도 높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 때 창건된 건물로 1308년(충렬왕 3년)에 지어졌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대웅전 중에서 가장 정형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을 살펴보면 정면 3칸, 측면 4칸 규모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일반적 건물입니다. 기둥 위에만 공포가 올라가는 전형적인 주심포 양식이며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백제 건축의 아름다움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정제된 장대석 축대 위에 올라가 있는 대웅전은 법왕으로서 권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뒷산 높이에 맞춰 건축물을 조성해 마치 숲이 병풍처럼 대웅전을 둘러싸고 있는 듯합니다. 맞배로 조성된 지붕은 정면에서 볼 때 수수하면서도 광채가 나는 고귀한 여인네 같은 성스러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수덕사 대웅전의 문은 밀어서 여는 문입니다. 이는 들어오는 수행자가 스스로 문을 미는 행위를 통해 자력완성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자신을 성불로 인도하는 길잡이요 안내자일 뿐이라 하며, 성불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덕사 대웅전의 문은 스스로 수행을 통해 들어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밖으로 당기는 문인데 안에서 보면 밖으로 밀어서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행자를 위해서 부처님이 문을 열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웅전은 석가불을 중심으로 우보처에는 아미타불을, 좌보처에는 약사여래불을 봉안해 3존불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좌우 보처불과 구별해 조금 더 높은 단을 만들어 주불임을 표현했으며 손 모양이 왼손을 무릎 위에 두고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려 땅을 가리키는 촉지수인을 하고 있어서 석가모니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옷은 양어깨를 다 덮는 통견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쪽 어깨를 드러내는 우견편단의 형식은 법을 설하는 모습의 표현이고, 통견 형식은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모습의 표현입니다.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부처님께 법을 청할 때 오른쪽 어깨를 들어내는 예를 취했는데 이를 통해 불상에서 우견편단의 모습은 법을 설하는 모습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양쪽 어깨를 다 덮은 모습은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모습으로 해석합니다.

약사불과 아미타불 또한 머리 모양, 얼굴 형태, 귀·눈·입·코의 표현, 양손과 옷 주름선의 사실적 묘사에서 본존불과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보처 아미타불은 구품수인 중 하품 중생인을 취해 법을 설하는 수인을 취하고 있으며, 좌보처 약사불은 약 그릇을 들고 있어 약사여래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약사불 좌측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서 있고, 아미타불 우측에는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이 서 있습니다.

당목 전통 따른 종각 조성

중국 전설에 용생구자(龍生九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용이 성격이 각기 다른 9마리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에서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하던 포뢰(蒲牢)라는 용이 있습니다. 이 포뢰가 종의 윗부분을 장식하는데 쓰이는 용입니다.

이와 관련 〈삼국유사〉에는 "종은 모두 각(閣)과 포뢰가 있고 고래로 당(撞)을 삼았다(皆有閣有蒲牢 鯨魚爲撞)"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성호사설〉에는 "바닷가에 있는 포뢰라는 짐승은 천성이 고래를 두려워한다. 매양 무엇을 주어 먹을 때에 고래가 물결 위로 뛰어 오르면, 포뢰는 몸둥이를 움추리면서 우는데 그 울음이 큰 북소리처럼 웅장하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한국 종의 상륜부에 올라가 있는 용이 포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포뢰를 울리기 위해서는 고래 모양의 당목이 있어야 구색이 맞습니다. 현존하는 한국의 많은 종들에서 고래 모양의 당목 전통이 사라지고 실용적으로 종을 치기 좋게 만든 반면에 수덕사 종각에는 고래 모양 당목을 조성했습니다.

한편 종각 맞은편에 있는 수덕사 법고각에는 사찰에서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특이한 형태의 사물이 조성돼 있습니다. 거북이처럼 생긴(연으로 추정)동물 위에 올려져있는 법고를 비롯해 특이한 구름 모양의 운판과 화려한 용으로 변신한 목어가 있습니다. 수덕사 종각의 고래 당목은 맞은 편 법고각과 함께 수덕사의 명물입니다.

원래 종은 수행자를 위해 하늘의 천인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본존 석가모니불 가르침에 따라 자력완성의 목표를 위해 결사 정진하는 수행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건 당시부터 석가모니불 주불로 신앙구축
수덕각시 전설로 방문객 늘어 관음상 봉안

수덕사 대웅전은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백제 건축의 아름다움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글 · 사진 한지유 mytra@naver.com
한국생활문화연구소 소장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문화재 강사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